理論言語學(一般文法)의 比較에 관하여

朴 亨 達
(人文大・言語學科 副敎授)

지금까지 인물이나 국가, 언어나 어족에 따라, 두각을 보이는 각 학파의 문법이론 또는 이론 언어학을, 개별적으로 학습하고 연구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것들을 하나의 連續體로서 파악하고 比較함으로써,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울러서 이와 같이 하나의 連續體로서 파악되고 비교된 문법이론 또는 이론언어학의 대응부로서의 언어도, 각각의 이론의 적용을 받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이론의 연속체**의 대응부로서의, **언어의 연속체**로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이론의 연속체**와 **언어의 연속체**를 **이론과 언어의 평등적인 연속체**로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 글의 관심사가 된다. 따라서, 이 글은, 도식화를 위주로 한, **이론의 분석론**인 동시에 **언어의 분석론, 비교 문법이론** 또는 **비교 이론언어학**인 동시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비교 언어(기술)학**,의 정립을 그 목표로 삼는다.

문법이론(이론언어학)은 두 가지 방법 즉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그림**과, 이론의 전개에 사용되는 **용어**로써 표시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문법이론(이론언어학)을 비교하여 하나의 이론의 연속체를 성립시키려면, **그림**과 **용어**를 비교하여, **그림의 연속체**와 **용어의 연속체**를 성립시킴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언어의 연속체는, (연속체 이전의 언어가, 그림과 용어에 각각 대응되어, 이론의 설명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그림의 연속체와 용어의 연속체가 성립되면, 자연히, 언어의 연속체가 동시에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관심과 목표 그리고 취지를 가지고, 아래에서 우리는 Saussure와 Guillaume을 비교하고저 한다. 이 두 문법이론(이론언어학)을 비교하는 것은, 이 相反되는 두 문법이론(이론언어학)의 비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내용을 같이 하는 두 相反되는 문법이론(이론언어학)의 비교에도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Saussure와 Guillaume의 비교는, Saussure에 대한 Guillaume의 비판에서, 쉽게 그리고 적절하게,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아래에, 그 비판의 내용을 그대로 싣기로 한다.

다음에, Saussure의 "言語活動(langage)/言語(langue)/말(parole)"의 **三分**에 대한, Guillaume의 입장에서의 비판을 알아 보기로 한다. 이미 Guillaume자신의 관점은 서 있었다. 그러므로 이 비판은, Saussure를 빌어서, Guillaume 자신의 觀點을 발표하는 동시에 Saussure를 批判 내지는 자기쪽으로 끌어 들이는 성격을 띄고 있다.

우선 Guillaume은 Saussure의 「一般言語學 講義」(*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1916)의 長點을 "便宜主義"(opportunisme)라고 표현한다. 이것은 그 책이 出版되던 당시의 지배적인 言語學의 경향이던 歷史적 관점에 반대하는 Saussure와 같은 명성있는 학자로서는, **歷史적 三分性**과 구별되는 **非歷史적 三分性**을 제시함에 있어서, 좀 그 태도가 분명치 못했다는 뜻이 담긴 일종의 풍자적인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좀 特殊한 측면이기는 하나, F. de Saussure의 「一般言語學 講義」의 장점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누구인가가 지적한 바 있거니와, 그의 便宜主義이다. 出版 즉시 유명해진 이 저서가 나오던 당시——「一般言語學 講義」는 1916년에 나왔다——言語學에서의 支配적인 主張은 말하자면 歷史적인 眞髓였다. 사람들은 歷史로 부터, 그리고 比較方法이 허용하는 時間에서의 遡及으로 부터, 萬事의 설명을 기대했다.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하나의 錯覺이었다. 그러나 이 錯覺은, 좀 주의 깊은 推理로 先驗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一般言語學 講義」가 나왔을 당시에도, 아직도, 절대 다수의 言語學者와 文獻學者 또는 다대수의 그들의, 굽힘 없는 확신이었다. (…) 사정을 더 악화시킨 것은, 言語學者의 주의가 "말"(parole)의 측면에 쏠리고, 따라서, 그와는 다른 "言語"(langue)의 측면에서는 빗 나갔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잘 알리는 것이 F. de Saussure의 의무였다. (…) 이 誤謬는, 그 결과가 중대하거니와, F. de Saussure의 책이, 기대한 효과를 내고 광범한 성공을 거둔 후에도 지속되었다. 또한, 이 성공은 특히 高度의 성공, 理論적인 성공이었다. 사람들은 Saussure의 일반적인 관점들을 인정하였고, 그 정당성을 인식하고 찬미하였으나, 실제로는, 言語學 연구에서 아무 것도 변화한 것이 없었다. 그리고, 狀態의 유일한 軸, 즉 Saussure의 用語로 共時態(synchronie)에서, 言語狀態의 설명에 대하여 행하여진 몇몇 시도들은, 갖가지 이유로, 정말 성공한 일들은 아니었다.

F. de Saussure의 저술이 출판된 당시에 있었던 상황에 대하여 내가 방금 행한 관찰은 그러한 상황을 바로 잡도록 운명지어진 하나의 介入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을 돋보이게 한다. 그런데 그러한 介入은, 그것이 작용하려면, 이미 저명한, 學界의 알려진 스승으로 부터 나와야 한다. 비록 더 나은 모습으로라 할지라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그늘 속에서 그의 全學問과 함께 있는 사람에게서 나왔다면, 그 介入은 당장에는 反響이 없어 별 효과가 없었을 것이다. 중요한 사실들이, 비록 그것들이 중요한 인물에 의해서 말해진다 할지라도, 말해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중요한 인물들은, 그들이 말할 중요한 사실들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를 해야 현명할 것이다.

어찌 됐던, 그 저자의 명성은, 우리의 지금의 관심사의 경우, 크게 그 목적에 이바지했다. 그러나 만일 F. de Saussure가, 그가 가담한 전투에서, 비록 그가 속으로는 아주 혁명적이었다 할지라도, 지배적인 관점들과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는 관점들만을 내놓는 조심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목적은 덜 유리하게 달성됐을 것이다. 우리가 F. de Saussure의 便宜

主義라고 부른 것은, 바로, 공격에 있어서의 이러한 절제와, 그 저서의 각 페이지마다에서 보는 바, 새로히 내놓은 관점들에 대한 반대를 증대시키지 않으려는 변함 없는 苦心을 두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자기에게 유리한 평가를 갖으려면 말을 할 수 없었던 사정만 아니었더라면, 그 스승이 말을 했어야 할 사실들이 확실히 있다.

내가 일찍부터 알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알려 준, Saussure의 이 便宜主義에 관해서,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 아닐 것이다. F. de Saussure는 言語活動(langage), 言語(langue), 말(parole)을 구분하고, 그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等式을 제시한다:

言語活動=言語+말

이 等式은 **言語活動**을, **言語**에서 **말**: 우리의 내부에 항구적으로 잠재 상태에서 존재하는 **言語**와 우리의 내부에 순간적으로 결과적인 상태에서 존재하는 **말**, 로의 連續(successivité)의 全部, 總體로하는 관계에 따라서 解釋하여야 한다.

이 解釋은, 내 나름으로 내린 것으로서, F. de Saussure의 책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 解釋이 明示적으로는 아무데도 안 나타나 있으나, 暗示적으로는 도처에 나타나고 있다. 이 解釋은 이 책의 전체 내용으로 보아서 暗示적으로 이 책 속에 있다. 나타나 있는 것 보다 더 깊은 설명을 暗示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便宜主義의 특색이며, 이 책은 더 큰 성공 또는 새로 탄생한 主張의 장소에 대한 감소된 抵抗을, 그에게 힘입고 있는 것이다.

F. de Saussure가 지적한 바와 같이, **言語活動**은 두 구성요소: **言語**와 **말**, 에 대한 全體인 것이 사실이다. Saussure式 관계를 精密히 批判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text{言語活動} \int \begin{matrix} \text{말} \\ + \\ \text{言語} \end{matrix}$$

이런 모양으로 나타내면, 다루어지고 있는 중심 문제가 밝혀지며, 이렇게 밝혀짐으로써, Saussure의 公式:

言語活動=言語+말

이, 그 결함을 들어낸다. Saussure式 公式이 看過하고 있는, 그리고 言語學의 모든 문제에서 가장 엄밀하게 고려되어야 할 여지가 있는 要因은, 時間이라는 要因이다. 全體로서의, 總體로서의 **言語活動**은 連續性(successivité): ——화자안에 항구적으로(따라서 모든 순간성을 떠나서) 존재하는——**言語**로 부터, 화자 안에 단지 순간성으로서 (다소간, 空間化된 순간성으로서) 존재하는——말로의 移行의 連續性을 포함하고 있다.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이 連續性(successivité)에 관해서, Saussure의 저서는, 便宜主義적

으로, 말을 안하고 있다. 만일에 Saussure가 그런 생각이었다면, 그는 사실에 대한 더 복잡하고 더 참된 관점에 도달했을 것이나, 通時적인 설명, 先行에 의한 後行의 설명 이외의 다른 설명을 모르는, 歷史家들의 몸에 배인 어떤 簡易主義의 눈에는 벗어났을 것이다. 歷史學의 主張者들이 脫皮하지 못하는 理性적 圖式(schème intellectif)은 아주 단순하다 :

先 行　(認證된 것, 證明된 것)
↓
規則적 취급　(觀察된 것)
↓
後行 結果　(취급에 의해서 產出된 것 그리고 그것 또한 認證되고 證明된 것)

(Principes de linguistique théorique de Gustave Guillaume, Quebec/Paris, 1973, pp. 64-68.

Un mérite, d'un ordre assez particulier, du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de F. de Saussure fut, quelques-uns avant nous avaient déjà fait la remarque, son opportunisme. À l'époque—qui remonte à trente ans (le *Cours de linguistique* date de 1916)—où parut cet ouvrage, devenu presque aussitôt célèbre, la doctrine régnante en linguistique était, si l'on peut dire ainsi, d'essence historique. On attendait de l'histoire, et de la remontée dans le temps que permettait la méthode comparative, l'explication de toute chose. Il y avait là, évidemment, une illusion, mais cette illusion, encore qu'on eût pu s'en rendre compte *a priori* par un raisonnement simplement attentif, était encore, quand parut le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la conviction inébranlée sinon absolument de tous les linguistes et philologues, du moins de la très grande majorité d'entre eux. Et(...) ce qui aggravait la situation, c'était que l'attention des linguistes était tournée à peu près exclusivement du côté de la *parole*, et pour autant se détournait de la *langue*, qui est autre chose; ce qu'il appartenait à F. de Saussure de faire bien voir.

(...). Cette erreur, dont les conséquences sont graves, a persisté même après que le livre de F. de Saussure eut produit l'effet qu'on en pouvait attendre et obtenu le succès universel qui fut le sien. Ce succès, du reste, a été surtout un succès de haute estime, un succès théorique. On a admis les idées générales de Saussure, on en a reconnu et admiré la justesse, mais, pratiquement, peu de chose a été changé aux études linguistiques. Et les quelques tentatives faites d'explication d'un état de langue sur le seul axe des états, c'est-à-dire, selon la terminologie saussurienne, en synchronie, n'ont pas été, pour des raisons diverses, des choses vraiment réussies.

Les remarques que je viens de faire sur la situation scientifique existante au moment où parut l'ouvrage de F. de Saussure font ressortir la nécessité, à ce moment, d'une intervention destinée à en opérer le redressement. Or une telle intervention, si elle devait être opérante, devait venir d'un maître écouté du monde savant, déjà glorieux. Venue, même en des formes supérieures, d'un homme peu connu, demeuré avec toute sa science dans l'obscurité, elle n'aurait pas eu, dans l'immédiat, le moindre effet, faute de retentissement. Il ne suffit pas que les choses importantes soient dites, encore faut-il qu'elles soient dites par un homme important. Les hommes importants seraient sages s'ils s'enquéraient suffisamment des choses importantes à dire.

Quoi qu'il en soit, la réputation de l'auteur a, dans le cas qui nous intéresse, servi grandement la cause. Mais cette cause eût été moins heureusement servie si F. de Saussure, dans le combat qu'il engageait, n'avait pas pris le soin de n'avancer, si révolutionnaire fût-il au fond, que des idées ne heurtant pas trop de front les idées régnantes. C'est cette modération dans l'attaque, et le souci constant, en chaque page de l'ouvrage, de ne pas accroître l'opposition aux idées nouvelles avancées, qu'on a appelé l'opportunisme de F. de Saussure. Il y a des choses certainement que le maître aurait dites, n'était le moment qui ne permet-tait pas, si l'on voulait trouver une audience favorable, qu'on les dît.

De cet opportunisme de Saussure, dont je me suis rendu compte de bonne heure et que d'autres ont signalé, il peut ne pas être inutile de rechercher en quoi, au juste, il a consisté. F. de Saussure distingue langage, langue et parole et il pose l'équation, chez lui fondamentale:

Langage=langue+parole

équation qu'il faut interpréter selon une relation qui fait du langage le tout, l'intégrale, d'une successivité, celle de la langue à la parole: de la *langue* présente en nous en permanence à l'état de puissance, et de la *parole* présente en nous, par moments, à l'état d'effet.

Cette interprétation, que je produis à mon compte, ne se rencontre pas dans le livre de F. de Saussure, mais, tout de même, bien qu'elle n'y apparaisse explicitement nulle part, elle s'y trouve partout impliquée. Elle est dans le livre, vu sa teneur d'ensemble, quelque chose d'implicite. Le maintien dans l'implicite d'une explication plus approfondie que celle présentée est un trait d'opportunisme, et l'ouvrage lui est redevable, sinon d'un plus grand succès, du moins d'une résistance diminuée à l'endroit de la doctrin naissante nouvelle.

Le langage est bien, comme l'a indiqué F. de Saussure, un tout relatif à deux composantes: la langue et la parole. Ce qu'on pourrait écrire, avant critique serrée de la relation saussurienne, de la manière que voici:

$$\text{langage} \int \begin{matrix} \text{parole} \\ + \\ \text{langue} \end{matrix}$$

Présentée sous cette forme, la question traitée, capitale, s'élucide, et de ce qu'elle s'élucide, la formule de Saussure:

langage=langue+parole

laisse apparaître ses défauts. Un facteur dont la formule saussurienne ne tient pas compte, et dont en toute question linguistique il y a lieu de tenir le compte le plus étroit, c'est le facteur temps. Le langage comme tout, comme intégrale, enveloppe une successivité: celle du passage de la langue—présente dans le sujet parlant en permanence (en dehors de toute momentanéité par conséquent)—à la parole, présente en lui par momentanéités seulement (par momentanéités plus ou moins espacées).

De cette successivité, qui complique le problème, l'ouvrage de Saussure, opportunément, ne parle pas. Si Saussure en eût fait état, il aurait été conduit à une vue des choses plus complexe, et plus vraie, mais qui eût déplu à un certain simplisme naturel aux historiens, lequel consiste à ne voir d'autre explication que celle, diachronique, du conséquent par l'antécédent. Le schème intellectif dont ne sortent pas les tenants de la science historique est le suivant, très simple:

antécédent (constaté, attesté)
↓
traitement régulier (observé)
↓
résultat *conséquent* (engendré par traitement et lui aussi constaté, attesté).

(Leçon du 20 février 1948, série C).

다음에는 二重運動 連續體에 관하여 :

言語의 構造 자체 속에 可視적인 特徵으로 記入된, 精神의 근본적인 모든 作業은, 좁은 데서 넓은 데로 향하거나, 넓은 데서 좁은 데로 향하는 **二重적 運動**과 결부되어 있다.

우리는, 言語(langue)에서 행해지고 있는 구분, 예컨대, "달리다"(courir)라는 단어와 "달리기"(course)라는 단어 사이의 구분에서, 그(2重적 運動의) 증거를 본다. "달리다"(courir)라는 단어는 動詞이다 ; "달리기"(counse)라는 단어는 名詞이다. 그런데, 識別되는 개념이라는 관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달리기"(course)와 "달리다"(courir)는 동일한 運動 개념, 동일한 過程 개념을 그들 스스로가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共通된, 그리고 그들 둘을 모두 동일한 識別作業에 귀속시키는, 이 運動 개념은, 그에 이어서, 精神이 그 자체 안에서 취하는 傾斜에 따라서, 理解의 作業을 産出하는데, 그것(理解의 作業)은, 때로는, 時間으로 매듭지어져서, 그 결과 動詞 "달리다"(courir)가 되거나, 혹은 또, 空間으로 매듭지어져서 그 결과 實詞 "달리기"(course)가 된다. 한 **言語體系는 識別된** 개념에서 **직접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개념의 識別**이, 그에 이어서, 우리가 방금 본 바와 같이, **識別된** 개념과는 **高度로 獨立된** 一般化적이고 分類化적인 **理解**(entendement)를 産出하는 바로 부터 생긴다. 識別된 개념은 "걷다"(marcher)와 "걷기"(marche)에서 동일하다 : 그러나 하나의 동일한 識別作業에 대하여, 우리는 **최종의 理解**(entendement final)의 두 相異한 作業에 호소하는 能力을 그 맞은 편에 (짝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다(*Leçons de linguistique* *de Gustave Guillaume—Structure sémiologique et structure psychique de la langue française* II, Quebec/Paris, 1974, pp. 23-24).

Toutes les opérations fondamentales de l'esprit, inscrites en traits visibles dans la structure même des langues, se rattachent à ce double mouvement, orienté soit dans le sens qui va de l'étroit au large, soit dans le sens allant du large à l'étroit.

On en a la preuve dans la distinction opérée en langue entre, par exemple, le mot *courir* et le mot *course*. Le mot *courir* est un verbe; le mot *course* un nom. Or, du point de vue de la notion discernée, il n'existe point de différence. *Course* et *courir* apportent avec eux la même idée de mouvement, la même idée de procès. Mais cette idée de mouvement qui leur est commune, et les fait ressortir toutes les deux à une même opération de discernement, entraîne à sa suite. selon la pente que prend l'esprit en lui-même, une opération d'entendement qui ou bien se conclut au temps, et il en résulte le verbe *courir*, ou bien se conclut à l'espace, et il en résulte le substantif *course*. Le système d'une langue ne procède pas directement de la notion discernée, mais de ce que le discernement des notions entraîne, à sa suite, un entendement généralisateur et classificateur indépendant à un haut degré, comme on vient de le voir, de la notion discernée. La notion discernée est la même dans *marcher* et dans *marche*: mais, pour une même opération de discernement, on a en regard la faculté de recourir à deux opérations différentes d'entendement final.

이것은 다음과 같은 도식 (Gustave Guillaume, *Langage et Science du Langage*, Paris/Quebec, 1973, p. 99)으로 그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text{特殊 (Singulier)} \left|\begin{array}{c} A \\ \longrightarrow \\ \longleftarrow \\ B \end{array}\right| \text{一般 (Universel)}$$

1) 위 도식은 인간의 **思考행위의 二重性** : "一般→特殊" ; "特殊→一般"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 "一般→特殊", "特殊→一般", 의 **二重的 運動**(즉 二重運動 連續體)에서의 **通過(貫通) 地帶** 즉 **全體領域**은 單語(mot) (위 그림 : "特殊 $\left|\begin{array}{c} A \\ \leftrightarrows \\ B \end{array}\right|$ 一般"에서의 A와 B)이다. 그러므로 이 二重運動 連續體에는 세 개의 要素가 관여한다. 따라서 이 二運動連續體는 이들 세 개의 要素 : "一般/特殊/單語"가 관여된 두 개의 運動 連續體 : 위 그림 "特殊 $\left|\begin{array}{c} A \\ \leftrightarrows \\ B \end{array}\right|$ 一般"을 풀면⇒ "一般$\xrightarrow{A}$特殊 特殊$\xrightarrow[B]{}$一般"과 같은 그림이 된다. 이 그림은 보는 바와 같이 **異方向**(⇆ ; →→)적이다. 이것은 **等方向**(⇉ ; →←)과 그 모양을 달리 함을 알 수가 있다. **異方向적 連續體**(⇆ ; →→)는 그 非重壘(非反覆)적인 異方向性(非絕對性/相對性) 때문에, **有限한 分析的 連續體**라고 할 수 있는 반면, **等方向적 連續體**(⇉ ; →←)는 그 重壘(反覆)적인 **等方向性**(絕對性/非相對性) 때문에, **無限한 非分析적 斷絕體**라고 말할 수 있다.

2) 따라서 Guillaume이 말하는 *物質적* 즉 識別(discernement)作業으로서의 두 개의 運動 連續體란, **等方向적(絕對적/非相對적)인 無限 重疊(反覆)적(非分析적) 斷絕體** 즉 **脫二重運動 連續體 : ⇉ ; →← ;** 위 그림 식으로는 : "一般 $\left|\begin{matrix}A\\ \rightrightarrows\\ B\end{matrix}\right|$ 特殊", 이것을 풀면⇒"一般 $\xrightarrow{A}$ 特殊特殊 $\xleftarrow[B]{}$ 一般"과 같은 그림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와 반대로, 위의 **脫 二重運動 連續體**와는 **高度로 獨立된** 形式적 즉 理解(entendement)作業으로서의 二重運動 連續體가 바로 위 1)에서의 Guillaume의 그림이 보이는 바 **異方向적(相對적/非絕對적)인 有限한 分析적(非重疊적/非反覆적) 連續體**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아래에서 Guillaume의 그림 : "特殊 $\left|\begin{matrix}A\\ \leftrightarrows\\ B\end{matrix}\right|$ 一般" 및 그것을 푼 그림 : "一般 $\xrightarrow{A}$ 特殊特殊 $\xrightarrow[B]{}$ 一般"을 토대로하여, 이 그림이 含蓄하는 바를 分析하기로 한다. 우선 **異方向적 形式적(理解적) 二重運動 連續體**부터 시작하고 다음에 **等方向적 實質적(識別적) 脫 二重運動 連續體**를 살펴기로 한다.

1°) **異方向적 形式적(理解적) 二重運動 連續體 :**

위의 Guillaume의 그림 : "特殊 $\left|\begin{matrix}A\\ \leftrightarrows\\ B\end{matrix}\right|$ 一般"은 1°)의 連續體의 토대가 되는 그림으로서, **有限한 分析性(非重疊性/非反覆性)**을 그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이 그림을 直線적으로 옆으로 풀면 : "一般 $\xrightarrow{A}$ 特殊特殊 $\xrightarrow[B]{}$ 一般"과 같이 分析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分析된 그림을, 위의 토대가 된 그림으로 옮기면 : "$\begin{matrix}特殊\\ 特殊\end{matrix}$ $\left|\begin{matrix}A\\ \leftarrow\\ \rightarrow\\ B\end{matrix}\right|$ $\begin{matrix}一般\\ 一般\end{matrix}$"과 같이 된다("特殊"는 "非分析"에, "一般"은 "分析"에 대응됨에 주의). 이 그림은 곧 **異方向의 分析된 連續體**를 作成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되는 그림이다. 그러므로 이 그림을 完成하려면, 이 그림을 **남김 없이(有限하게)/異方向적으로("一般=分析" "特殊=非分析", "特殊=非分析" "一般=分析"적으로), 分析**하지 않으면 안된다. 위 그림에서 아직 이와 같이 分析되지 않은 부분은, (**單語**로서의) A와 B, 그리고 "特殊$|\overset{A}{\leftarrow}|$一般"에서, "$\overset{A}{\leftarrow}$"의 上位(分析)으로서의 "特殊| |一般"의 윗 空間과 "$\underset{B}{\rightarrow}$"의 上位(分析)으로서의 "特殊| |一般"의 아랫 空間이다. 이들 부분이 分析됨으로써 위 그림은 **남김 없이(有限하게)/異方向적으로("一般=分析"/"特殊=非分析"적으로)** 그 分析이 完成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상의 分析은 이 그림에서, 이 그림이 갖는 有限性/異方向性 때문에, 許容되지 않는다. (이 점은, 아래에서 말하게 될, **等方向적 實質(識別)적** 그림 : "$\begin{matrix}一般\\ 一般\end{matrix}$ $\left|\begin{matrix}A\\ \rightarrow\\ \rightarrow\\ B\end{matrix}\right|$ $\begin{matrix}特殊\\ 特殊\end{matrix}$"에서, 위의 **異方向적 形式(理解)적** 그림과 똑 같은 부분을 分析하더라도, 이 그림이 갖는 無限性/等方向性 때문에, 分析이 完成되지 않는 것과, 對立된다). 우선 (**單語**로서의) A와 B의 分析으로 부터 : "$\begin{matrix}特殊\\ 特殊\end{matrix}$ $\left|\begin{matrix}A\\ \leftarrow\\ \rightarrow\\ B\end{matrix}\right|$ $\begin{matrix}一般\\ 一般\end{matrix}$"의 A와 B는, 각각, "一般(=分析)/特殊(=非分析)", 特殊(=非分析)/一般(=分析)"으로, 分析된다. 이 때 "一般(=分析)"은 그 **分析性**을 反映하기 위하여 $單_1$ $單_1$과 같이, 두 개로 표시하고, "特殊(=非分析)"은 그 **非分析**

性을 反映하기 위하여 單$_1$과 같이, 한 개로, 각각 分析 표시하여, A, B 각각이 모두 세개 씩이 되도록 표시한다. 즉 : $\begin{array}{c|c|c} \text{特殊} & \text{單}_2\text{單}_1\text{單}_1 & \text{一般} \\ & \longleftarrow & \\ & \longrightarrow & \\ \text{特殊} & \text{單}_2\text{單}_1\text{單}_1 & \text{一般} \end{array}$ 과 같이 표시한다. 이것이 (**單語**로서의) $\underset{\text{B}}{\overset{\text{A}}{\leftrightarrows}}$ 連續體의 分析 표시가 된다.

다음에는 위 그림의 위와 아래의 空間을 分析함으로써, 즉 그림 : $\begin{array}{c|c|c} \text{特殊} & \qquad & \text{一般} \\ \text{特殊} & & \text{一般} \end{array}$ 을 "一般(=分析)/特殊(=非分析)", "特殊(=非分析)/一般(=分析)"으로 連續體化하는 일이다. 이것은 위와 아래의 각각을 "一般(=分析)"으로 잡고 그 각각에 딸린 "一般(=分析)/特殊(=非分析)", "特殊(=非分析)/一般(=分析)을, 각각, "特殊(=非分析)"으로 잡음으로써 가능하다. 즉 : $\begin{array}{c|c|c} & \text{一般} & \\ \text{特殊} & \text{單}_2\text{單}_1\text{單}_1 & \text{一般} \\ & \longleftarrow & \\ & \longrightarrow & \\ \text{特殊} & \text{單}_2\text{單}_1\text{單}_1 & \text{一般} \\ & \text{一般} & \end{array}$ 과 같이 分析 표시함으로써 그와 같은 連續體化의 표시가 完成된다. 더 자세히 말하면, 이 그림은 上位的(=分析적="一般→特殊"적) 連續體 안에서의 上位적(=分析적), 즉 : "一般→特殊(=一般・特殊)적 連續體와 下位적(=非分析적), 즉 : "特殊(=特殊・一般)→一般"적 連續體와의 (**남김 없는(=有限한)/異方向적**(="**一般→特殊・特殊→一般**"的) **共存(連結)**과, 下位적(=非分析적="單語"적) 連續體 안에서의 上位적(=分析적), 즉 : "一般(=單語$_1$・單語$_1$)→特殊(單語$_2$)"적 連續體와 下位적(=非分析적), 즉 : "特殊(=單語$_2$)→一般(=單語$_1$・單語$_1$)"적 連續體와의 有限的/異方向적 **共存(連結)**을 나타냄과 동시에, 전체로서의 上位적(=分析적) 連續體 즉 : "一般→特殊(=一般・特殊)・特殊(=特殊・一般)→一般" 連續體와, 전체로서의 下位적(=非分析적) 連續體 즉 : "一般(=單語$_1$・單語$_1$)"→特殊(=單語$_2$)・特殊(單語$_2$)→一般(單語$_1$・單語$_1$)" 連續體와의, **有限적/異方向적 共存(連結)**을 나타내는 그 림이다. 첫째로, 전체로서의 下位적(=非分析적=單語적) 連續體를 直線(——)으로 표시하고 그리고 그 내부에서의 上位(=分析)적 連續體("一般=單語$_1$・單語$_1$→特殊=單語$_2$")와 下位(=非分析)적 連續體(特殊=單$_2$→一般=單$_1$・單$_1$")의 有限적/異方向的 **共存(連結)**을 그 直線(——)에다 오른편을 향한 화살 표를 그 중앙과 오른편 끝에 표시함으로써 나타내고(一般=單$_1$單$_1$→特殊・特殊=單$_2$・單$_2$→一般=單$_1$・單$_1$), 둘째로, 전체로서의 上位적(=分析적=一般적) 連續體는 斜線(∨)으로 표시하고 그 내부에서의 上位(=分析)적 連續體("一般→特殊=一般・特殊")와 下位(=非分析)적 連續體("特殊=特殊・一般→一般")의 有限적/異方向적 **共存(連結)**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화살표를 下降斜線의 끝(↘)과 上昇斜線의 끝(↗)에 붙임으로써 하고(↘↗), 마지막으로, 전체로서의 上位적 (=分析적=一般적)連續體(↘↗ : "一般→特殊(=一般・特殊)・特殊(=特殊・一般)→一般")와 전체로서의 下位적(=非分析적=單語적) 連續體(→→ : "一般=單$_1$・單$_1$→特殊・特殊=單$_2$・單$_2$→一般=單$_1$・單$_1$")와의 有限적/異方向적 **共存(連結)**은 두 連續體중 上位(↘↗)를 위로

下位(→→)를 아래로 하여 붙이고$(\underset{\rightarrow\rightarrow}{\searrow\nearrow})$, 左·右 양쪽을 수직선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양쪽에 空白을 갖는 두 連續體 : ↘↗와 →→의 結合$(|\underset{\rightarrow\rightarrow}{\searrow\nearrow}|)$으로써 표시한다. 이 그림에서 空白의 의미하는 바는 두 連續體(↘↗와 →→)의 **共存(連結)**의 有限性|異方向性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풀이된다(이와 對立되는 無限적/異方向적 두 連續體(↘↙와 →←)의 **共存(連結)**의 그림$(|\underset{\rightarrow\leftarrow}{\searrow\swarrow}|)$에서의 空白이 그 共存의 無限性/等方向性을 나타내는 것과 對立된다). 이것이 Guillaume의 (부채꼴) 그림$(|\underset{\rightarrow\rightarrow}{\searrow\nearrow}|)$에 대한 해석이다. 그러면 이 空白을 갖는 그림$(|\underset{\rightarrow\rightarrow}{\searrow\nearrow}|)$은 空白을 갖지 않는 그림과 연결지어질 수 있을까? 연결지어질 수 있다면 그 空白 없는 그림은 어떤 것이며 그것과 空白 있는 그림과의 연결의 성격(모습)은 어떤 것일까? 첫째로, 空白있는 그림$(|\underset{\rightarrow\rightarrow}{\searrow\nearrow}|)$은 上位(↘↗)와 下位(→→)의 完全한 有限적/異方向적 共存(連結)이 아님을 그 空白이 가리키고 있다. 그 반면, 空白 없는 그림은 上位(↘↗)와 下位(→→)의 完全한 有限적/異方向적 共存(連結)임을 그 空白의 除去가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이 空白이 除去되어 없는 (뒤에 설명할) 그림을 上位라고 한다면, 空白이 除去되지 않고 있는 그림$(|\underset{\rightarrow\rightarrow}{\searrow\nearrow}|)$은 下位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下位로서의 이 空白 있는 不完全한 有限적/異方向적 그림$(|\underset{\rightarrow\rightarrow}{\searrow\nearrow}|)$은 필연적으로, 空白이 除去되어 없는 (뒤에 설명할) 上位의 그림에 연결됨으로써 비로소, 上位와 下位의 完全한 有限적/異方向적 共存(連結)이 完結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空白이 除去되어 없는 上位의 그림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空白을 除去함으로써 가능하다**. 그 空白을 자세히 살피면 : 1°) 上位(↘↗)와 下位(→→)와의 不完全한 連結(共存)에서의 空白 : $(|\underset{\rightarrow\rightarrow}{\searrow\nearrow}|)$; 2°) 上位(↘↗) 내부의, 上位(↘)와 下位(↗)와의 不完全한 連結(共存)에서의 空白 : (↘↗), 그리고, 下位(→→)내부에서의, 上位(→)와 下位(→)와의 不完全한 連結(共存)에서의 空白 : (→→) ; 3°) 上位(↘↗)내부의 上位(↘)와, 下位(→→)내부의 上位(→)와의, 不完全한 連結(共存)에서의 空白$(\underset{\rightarrow}{\searrow})$, 그리고, 上位(↘↗) 내부의 下位(↗)와, 下位(→→) 내부의 下位(→)와의, 不完全한 連結(共存)에서의 空白$(\underset{\rightarrow}{\nearrow})$,을 들수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종류의 空白을 가진 不完全한 連結(共存) 즉, 1°) (↘↗)와 (→→) : $(|\underset{\rightarrow\rightarrow}{\searrow\nearrow}|)$; 2°) (↘)와 (↗) : (↘↗) 및, (→)와 (→) : (→→) ; 3°) (↘)와 (→) : $(\underset{\rightarrow}{\searrow})$ 및, (↗)와 (→) : $(\underset{\rightarrow}{\nearrow})$,를 그 不完全性의 정도로 분류할 때, 1°) $(|\underset{\rightarrow\rightarrow}{\searrow\nearrow}|)$가 그 不完全性의 정도가 가장 덜한(=共通적인)것으로, 2°) (↘↗) 및 (→→)가 그 다음으로, 3°) $(\underset{\rightarrow}{\searrow})$ 및 $(\underset{\rightarrow}{\nearrow})$가 가장 그 不完全性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분류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1°) $(|\underset{\rightarrow\rightarrow}{\searrow\nearrow}|)$는, 2°) (↘↗) 및 (→→)와 3°) $(\underset{\rightarrow}{\searrow})$ 및 $(\underset{\rightarrow}{\nearrow})$의 배후에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2°) (↘↗) 및 (→→)는 3°) $(\underset{\rightarrow}{\searrow})$ 및 $(\underset{\rightarrow}{\nearrow}|)$의 배후에 존재하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3°)$(\underset{\rightarrow}{\searrow})$ 및 $(\underset{\rightarrow}{\nearrow})$는 그 보다 더 不完全한 連結(共存)을 갖지 않는, 가장 不完全한 連結(共存)로, 분류된다(이 점은 뒤에 보게될 바와 같이, 1°), 2°), 3°)의 각각의 배후에 모두 존재하는 **단 하나의** 完全한 連結體(共存體)와는 달리, 이와 같이 세가지의 종류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그와는 對立된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종류의 空白을 除去**

함으로써, 그 각각의 不完全한 連結(共存)은 完全한 連結(共存)로 變形될 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각각의 不完全한 連結(共存)은 모두가 不完全한 連結(共存)의 한 가닥이므로, 그중 어느 하나만의 完金한 連結(共存)로의 變形은, 不完全한 連結(共存) 모두에 해당될 수 있는 變形이다. 바꿔 말하면, 不完全한 連結(共存)의 각각은, 그 각각의 배후에 完全한 連結(共存)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連結(共存)이다. 그러므로 위에 든 세 가지 종류의 空白을 가진 不完全한 連結(共存) 가운데서, 그것을 完全한 連結(共存)로 變形시키기에 손 쉬운 그림을 택해서, 變形시킴으로써, 完全한 連結(共存)의 그림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 完全한 連結(共存)의 그림은 **단 하나**(의 異方向적 그림)이다. 왜냐하면 그 **단 하나의 그림**이, 不完全한 連結(共存)의 그림의 각각의 배후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에 든 1°) $(|\underset{\rightarrow\rightarrow}{\searrow\nearrow}|)$; 2°) (↘↗) 및 (→→); 3°) $(\underset{\rightarrow}{\searrow})$ 및 $(\underset{\rightarrow}{\nearrow})$, 의 세 不完全한 連結(共存)가운데서. 3°)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不完全의 정도가 가장 크고 그 그림의 모양도 가장 구체적이므로, 이 3°)의 그림을 택하여 그것을 變形시켜서 完全한 連結(共存)의 그림을 얻을 수가 있다. 3°)의 그림 : $(\underset{\rightarrow}{\searrow})$ 및 $(\underset{\rightarrow}{\nearrow})$을 첫째 그림 : $(\underset{\rightarrow}{\searrow})$과 둘째 그림 : $(\underset{\rightarrow}{\nearrow})$으로 나누어서 그 각각을 完全한 連結(共存)로 變形시키면 ; 첫째의 그림 $(\underset{\rightarrow}{\searrow})$의 경우, 밑의 直線(→)을 위의 斜線(↘)에다 連結시켜서 밑의 直線(→)을 위의 斜線(↘)의 延長으로서 표시하고, 이것이 단순한 線의 等方向적 延長(↘)이 아니라, 異方向적 共存(連結)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斜線의 양 끝이 서로 異方向이 되도록 화살 표시를 함으로써(⤡), 이 變形은 끝난다. 이 變形(⤡)은, 다시 말하면, 不完全한 有限적/異方向적 共存(連續) $(\underset{\rightarrow}{\searrow})$의 完全한 有限적/異方向적 共存(連續)으로의, 變形(⤡)이다. 즉 $(\underset{\rightarrow}{\searrow})$의 接觸點이 除去되고, 단 하나의 斜線(⤡)으로 統一되었다. 이와 마찬가지 이유로, 둘째의 그림 $(\underset{\rightarrow}{\nearrow})$의 경우에는 첫째의 變形된 화살선 표시의 그림(⤡)과 對角을 이루는 화살선 표시(⤢)로 變形된다.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變形(⤢)은, 不完全한 有限적/異方向적 共存(連續) $(\underset{\rightarrow}{\nearrow})$의, 完全한 有限적/異方向적 共存으로의 變形(⤢)이다. 즉 $(\underset{\rightarrow}{\nearrow})$의 接觸點이 除去되고, 단 하나의 斜線(⤢)으로 統一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일은), 첫째 경우 $(\underset{\rightarrow}{\searrow})$의 接觸點의 除去에 의한 단 하나의 화살선 표시(⤡)로의 統一과, 둘째 경우 $(\underset{\rightarrow}{\nearrow})$의 接觸點의 除去에 의한 단 하나의 화살선 표시(⤢)로의 統一이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그 統一(⤡ 및 ⤢)은 統一 이전의, 接觸點이 除去되지 않은 상태의, $(\underset{\rightarrow}{\searrow})$ 및 $(\underset{\rightarrow}{\nearrow})$ 뿐만이 아니라, 위에서 본 바 2°)의 (↘↗) 및 (→→), 그리고 1°)의 $(|\underset{\rightarrow\rightarrow}{\searrow\nearrow}|)$를 모두 支配하는 단 하나의 統一이다. 그러므로 이 統一(⤡ 및 ⤢)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 그림의 모양이 이에 적절한 2°)의 (↘↗) 및 (→→), 그중에서도 (↘↗)만을 택하여 생각하기로 한다. 이 (↘↗)는 "一般→特殊・特殊→一般"을 가리킨다. **一般**을 (1)로, **特殊**를 (2)로 표시하면, $({}^{1}\searrow_{2}\,{}_{2}\nearrow^{1})$과 같이 표시된다. 그러므로 첫째의 統一(⤡)은 $({}^{1}\searrow_{2})$의 統一이고, 둘째의 統一(⤢)은 $({}_{2}\nearrow^{1})$의 統一임을 알 수 있다. 첫째의 統一(⤡)은 $({}^{1}\searrow_{2})$의 (2)가 除去된 統一, 즉, (1)을 기준으로하여

(2) 밑으로 까지 (1)이 延長되고$({}^{1}\diagdown_{1})$, $({}^{1}\searrow_{2})$가 完全히 異方向적으로 分析된 즉 양쪽에 異方向의 화살표를 가진, 統一$({}^{1}\nwarrow\!\!\searrow_{1})$이다. 그 반면 둘째의 統一$(\swarrow\!\!\nearrow)$은, $({}_{2}\nearrow^{1})$의 (2)가 除去된 統一, 즉, (1)을 기준으로 하여 (2) 밑으로까지 (1)이 延長되고$({}_{1}\diagup^{1})$, $({}_{2}\nearrow^{1})$가 完全히 異方向적으로 分析된, 즉 양쪽에 異方向의 화살표를 가진 統一이다$({}_{1}\swarrow\!\!\nearrow^{1})$. 그런데 이 둘째의 統一$({}_{1}\swarrow\!\!\nearrow^{1})$은, 첫째의 統一$({}^{1}\nwarrow\!\!\searrow_{1})$과 異方向이므로, 그와 구별짓기 위해서, (2)로 표시되는 統一$({}_{2}\swarrow\!\!\nearrow^{2})$이다. 그리하여, 일차적으로, 異方向의 對角線$\left(\begin{smallmatrix}{}^{1}\nwarrow & \nearrow^{2}\\ {}_{2}\swarrow & \searrow_{1}\end{smallmatrix}\right)$을 얻는다. 다음, 이차적으로는, 準對角線($({}^{1}\searrow_{2}\ {}_{2}\nearrow^{1})$의 異方向性이 가리키는 바에 따라서, 일차적 對角線$\left(\begin{smallmatrix}{}^{1}\nwarrow & \nearrow^{2}\\ {}_{2}\swarrow & \searrow_{1}\end{smallmatrix}\right)$과 異方向의 이차적 對角線$\left(\begin{smallmatrix}{}^{2}\nwarrow & \nearrow^{1}\\ {}_{1}\swarrow & \searrow_{2}\end{smallmatrix}\right)$을 얻어, 한 쌍의 異方向적 對角線$\left(\begin{smallmatrix}{}^{1}\nwarrow & \nearrow^{2}\\ {}_{2}\swarrow & \searrow_{1}\end{smallmatrix}\right.$ 및 $\left.\begin{smallmatrix}{}^{2}\nwarrow & \nearrow^{1}\\ {}_{1}\swarrow & \searrow_{2}\end{smallmatrix}\right)$을 얻는다. 이 完全한 異方向적 對角線$\left(\begin{smallmatrix}{}^{1}\nwarrow & \nearrow^{2}\\ {}_{2}\swarrow & \searrow_{1}\end{smallmatrix}\right.$ 및 $\left.\begin{smallmatrix}{}^{2}\nwarrow & \nearrow^{1}\\ {}_{1}\swarrow & \searrow_{2}\end{smallmatrix}\right)$이 곧 不完全한 異方向적 準對角線$\left(\begin{smallmatrix}|{}^{1}\searrow & \nearrow^{1}|\\ 1\to 2 & 2\to 1\end{smallmatrix}\right)$$({}^{1}\searrow_{2}\ {}_{2}\nearrow^{1})$와 $1\to 2\ 2\to 1$의 共存)을 支配하는 단 **하나의 形式(深層)적 共存(連續)體**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이 단 하나의 形式(深層)적 共存(連續)體 즉 完全한 異方向적 對角線$\left(\begin{smallmatrix}{}^{1}\nwarrow & \nearrow^{2}\\ {}_{2}\swarrow & \searrow_{1}\end{smallmatrix}\right)$과 그 支配를 받는 實質(表面)적 共存(連續)體 즉 不完全한 異方向적 準對角線$\left(\begin{smallmatrix}|{}^{1}\searrow & \nearrow^{1}|\\ 1\to 2 & 2\to 1\end{smallmatrix}\right)$과의 共存(連續)의 方式의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準對角線$\left(\begin{smallmatrix}|{}^{1}\searrow & \nearrow^{1}|\\ 1\to 2 & 2\to 1\end{smallmatrix}\right)$을 異方向의 完全性의 정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分類(分析)하여, 그 중 적절한 그림을 택하여 完全한 對角線$\left(\begin{smallmatrix}{}^{1}\nwarrow & \nearrow^{2}\\ {}_{2}\swarrow & \searrow_{1}\end{smallmatrix}\right)$에 모순 없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準對角線$\left(\begin{smallmatrix}|{}^{1}\searrow & \nearrow^{1}|\\ 1\to 2 & 2\to 1\end{smallmatrix}\right)$과 對角線$\left(\begin{smallmatrix}{}^{1}\nwarrow & \nearrow^{2}\\ {}_{2}\swarrow & \searrow_{1}\end{smallmatrix}\right)$의 共存(連續)의 성격(모습)은, 그 異方向性의 完全性의 정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分類(分析)된 準對角線 즉:

1°) 上位$({}^{1}\searrow_{2}\ {}_{2}\nearrow^{1})$와 下位$(1\to 2\cdot 2\to 1)$와의 共存(連結)으로서의 $\left(\begin{smallmatrix}|{}^{1}\searrow & \nearrow^{1}|\\ 1\to 2 & 2\to 1\end{smallmatrix}\right)$;

2°) a) 上位$({}^{1}\searrow_{2}\ {}_{2}\nearrow^{1})$ 내부의, 上位$({}^{1}\searrow_{2})$와 下位$({}_{2}\nearrow^{1})$와의 共存(連結)으로서의 $({}^{1}\searrow_{2}\ {}_{2}\nearrow^{1})$ 및

b) 下位$(1\to 2\cdot 2\to 1)$ 내부의, 上位$(1\to 2)$와 下位$(2\to 1)$와의 共存(連結)으로서의 $(1\to 2\cdot 2\to 1)$;

3°) a) 上位$({}^{1}\searrow_{2}\ {}_{2}\nearrow^{1})$ 내부의 上位$({}^{1}\searrow_{2})$와, 下位$(1\to 2\cdot 2\to 1)$ 내부의 上位$(1\to 2)$와의, 共存(連結)으로서의 $\left(\begin{smallmatrix}{}^{1}\searrow_{2}\\ 1\to 2\end{smallmatrix}\right)$ 및,

b) 上位$({}^{1}\searrow_{2}\ {}_{2}\nearrow^{1})$ 내부의 下位$({}_{2}\nearrow^{1})$와, 下位$(1\to 2\cdot 2\to 1)$ 내부의 下位$(2\to 1)$와의, 共存(連結)으로서의 $\left(\begin{smallmatrix}{}_{2}\nearrow^{1}\\ 2\to 1\end{smallmatrix}\right)$,

가 모두, 完全한 異方向적 對角線$\left(\begin{smallmatrix}{}^{1}\nwarrow & \nearrow^{2}\\ {}_{2}\swarrow & \searrow_{1}\end{smallmatrix}\right)$에, 모순 없이 도달하도록 作成된 (=위 準對角線$\left(\begin{smallmatrix}|{}^{1}\searrow & \nearrow^{1}|\\ 1\to 2 & 2\to 1\end{smallmatrix}\right)$의 각각이, 모두, 對角線$\left(\begin{smallmatrix}{}^{1}\nwarrow & \nearrow^{2}\\ {}_{2}\swarrow & \searrow_{1}\end{smallmatrix}\right.$ 및 $\left.\begin{smallmatrix}{}^{2}\nwarrow & \nearrow^{1}\\ {}_{1}\swarrow & \searrow_{2}\end{smallmatrix}\right)$의 支配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反映된) 그러한 共存(連續)의 모습(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共存(連續)의 모습(성격)을 反映하는 그림을 作成하기 위하여는, 위에서 행한 바, 準對角線$\left(\begin{smallmatrix}|{}^{1}\searrow & \nearrow^{1}|\\ 1\to 2 & 2\to 1\end{smallmatrix}\right)$으로부터 對角線$\left(\begin{smallmatrix}{}^{1}\nwarrow & \nearrow^{2}\\ {}_{2}\swarrow & \searrow_{1}\end{smallmatrix}\right)$을 作成하는 과정에서의 一般적인 規則을 끌어 낼 필요가 있다. 아래

에서 이 規則을 간추리면서 對角線($\overset{1\nwarrow\ \nearrow2}{2\swarrow\ \searrow1}$)과 準對角線($\overset{|1\searrow\ \nearrow1|}{1\to2\ 2\to1}$)의 共存(連續)의 모습(성격)(그림)을 조사(作成)하기로 한다.

(I) 위에서 본 바 準對角線($\overset{|1\searrow\ \nearrow1|}{1\to2\ 2\to1}$)의 세 가지 分類(分析)(바로 위 : 1°/2°/3°)의 의미 :

a) 準對角線 그림($\overset{|1\searrow\ \nearrow1|}{1\to2\ 2\to1}$)의 세 가지로의 分類(分析)은, 이 그림에 대한 그 이상의 分析(分類)이 불가능한, 最大의 단 한번만의 分析(分類)이다. 그 이상의 分析(分類)을 이 그림에 대해서 加한다는 것은, 이 그림이 지니고 있는 異方向性을 탈피한 (아래에서 보게 될) 等方向性의 그림($\overset{|1\searrow\ \swarrow1|}{1\to2\ 2\leftarrow1}$)을 分析(分類)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 그림의 세 가지로의 分類(分析)는, 이 그림이 지닌 不完全한 異方向性 곧 準對角線性($\overset{|1\searrow\ \nearrow1|}{1\to2\ 2\to1}$)의 테두리 안에서의 分類(分析)이다. 다시 말하면, 한편으로는 異方向性을 完全히 脫皮한 等方向적 그림($\overset{|\searrow\ \swarrow|}{\to\ \leftarrow}$)의 分析(分類)과는 無關하게, 다른 한편으로는 이 準對角의 그림($\overset{|1\searrow\ \nearrow1|}{1\to2\ 2\to1}$)의 上位의 그림 즉 完全한 異方向의 對角線의 그림($\overset{1\nwarrow\ \nearrow2}{2\swarrow\ \searrow1}$ 및 $\overset{2\nwarrow\ \nearrow1}{1\swarrow\ \searrow2}$)의 分析(分類)과 有關하게, 따라서, 이 그림의 모양을 그대로 사용하되, 이 그림의 세 가지 分類(分析)가 가리키는 바에 따라서, 그리고 그 上位의, 完全히 異方向적 그림($\overset{1\nwarrow\ \nearrow2}{2\swarrow\ \searrow1}$)의 分類(分析)가 가리키는 바에 따라서, 이 그림을 구별표시하여 分類(配置)함으로써, 이 그림의 세 가지로의 分類(分析)는 完結된다고 할 수 있다. 만일에, 이와 같이 하지 않고, 바로 위에서 한, 세 가지의 分類(分析)(1°/2°/3°)로써 만족하고 그것으로써 끝난다면, 그것은 이 그림의 성격 곧 異方向性에 어긋나는, 이 그림에서는 **불가능한** 分類(分析)가 된다. 이러한 分析(分類)은, 不分明한 全體를 그것을 구성하는 不分明한 部分으로 해부하는 不分明한 分類(分析)가 되어, 단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無限한 分析(分類)의 여지를 남기는, (뒤에서 보게 될) 等方向적 分析(分類)의 그림($\overset{|1\searrow\ \swarrow1|}{1\to2\ 2\leftarrow1}$)에서만 **가능한** 分類(分析)가 되고 만다.

b) 위 a)의 취지에 따라서, 이 異方向적 準對角線의 그림($\overset{|1\searrow\ \nearrow1|}{1\to2\ 2\to1}$)을 分類(分析)하면 다음과 같다 :

① 準對角線의 그림($\overset{|1\searrow\ \nearrow1|}{1\to2\ 2\to1}$)의 分析(分類)의 첫째 순위 즉 : 上位($1\searrow2\ 2\nearrow1$)와 下位(($1\to2\cdot2\to1$)로의 分析(分類)으로부터, 이 그림($\overset{|1\searrow\ \nearrow1|}{1\to2\ 2\to1}$)은 上位의 그림($\overset{|1\searrow\ \nearrow1|}{1\to2\ 2\to1}$)과 下位의 그림($\overset{|1\searrow\ \nearrow1|}{1\to2\ 2\to1}$)으로 나뉜다 ;

② 그 둘째 순위 즉 : 上位($1\nwarrow2\ 2\nearrow1$)안의, 上位($1\nwarrow2$)와 下位($2\nearrow1$)로의 分析(分類)으로부터, 그리고, 下位($1\to2\cdot2\to1$) 안의, 上位($1\to2$)와 下位($2\to1$)로의 分析(分類)으로 부터, 이 그림($\overset{|1\searrow\ \nearrow1|}{1\to2\ 2\to1}$)은 上位의 그림($\overset{|1\searrow\ \nearrow1|}{1\to2\ 2\to1}$) 안의, 上位($\overset{|1\searrow\ \nearrow1|}{1\to2\ 2\to1}$)와 下位($\overset{|1\searrow\ \nearrow1|}{1\to2\ 2\to1}$), 그리고, 下位의 그림($\overset{|1\searrow\ \nearrow1|}{1\to2\ 2\to1}$) 안의, 上位($\overset{|1\searrow\ \nearrow1|}{1\to2\ 2\to1}$)와 下位($\overset{|1\searrow\ \nearrow1|}{1\to2\ 2\to1}$)로, 각각 갈라진다. 따라서 上·下에 각각 두개씩 모두 네개의 그림($\overset{|1\searrow\ \nearrow1|}{1\to2\ 2\to1}$)이 된다 ;

③ 이 準對角의 그림 (|1↘↗1| 1→2 2→1) 네개의 配置(分類/分析)方式은, 그 보다 上位의 完全한 對角의 그림 (1↖↗2 2↙↘1) 및 (2↖↗1 1↙↘2)을 準對角의 그림 (1↖╱↗2 2↙╱↘1; 2↖╱↗1 1↙╱↘2)으로 잡고, 그것을 異方向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完全한 異方向의 對角線(1↖↗2 2↙↘1)을 얻기 위하여, 不完全한 異方向의 對角線 즉 準對角의 세 가지 그림 가운데서, 가장 손쉽고 적절한 모양의 그림을 택해서, 그것을 變形시키는 작업을 행한 바 있다. 즉 完全한 異方向의 對角線(1↖↗2 2↙↘1)을 얻기 위하여, 準對角線(|1↘↗1| 1→2 2→1)의 세 가지 分線(分析) 가운데서 둘째 分類(分析)의 (1↘2 2↗1)를 택하여 (1↘2)의 (1)을 기준으로 한, 完全한 異方向적 分析 표시로서의 (1↖↘1)로의 變形작업과, (2↗1)의 (1)을 기준으로 한, (1↖↘1)과 完全한 異方向적 分析 표시로서의, (2↙↗2), 따라서 異方向적 對角線(1↖↗2 2↙↘1)을 일차적으로 얻고, 이차적으로는, (1↘2 2↗1)의 그림의 異方向性이 가리키는 바에 따라서, 일차적 對角線과 異方向의 對角線(2↖↗1 1↙↘2)을 얻어, 한 쌍의 異方向의 對角線(1↖↗2 2↙↘1 및 2↖↗1 1↙↘2)을 얻는, 變形작업을 행한 바 있었다. 이와 같은 變形작업이 가능한 이유는 準對角의 그림의 세 가지 分類(分析)가 分明하게 限定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異方向적이고 有限한 分類(分析)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뒤에서 보게 될 바와 같이), 外觀上 위와 같으나, 不分明하게 限定된 準對角의 그림 (|1↘↙1| 1→2 2←1)의 세 가지 分類(分析)중에서 完全한 對角線(1↖↗2 2↙↘1)을 얻기 위하여 손쉽고 적절한, 外觀上 위(異方向의 경우)와 동일한, 準對角의 그림 (1↘2 2↙↗1)을 택하여, 그것을 變形시켜서 完全한 對角線(1↖↗2 2↙↘1)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 對角線(1↖↗2 2↙↘1)은 언제나 不分明한 채로 남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진 等方向적이고 無限한 變形작업과, 대립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準對角의 그림 (|1↘↗1| 1→2 2→1) 네개의 配置(分類/分析)도, 한편으로는 그 上位의 完全한 對角의 그림 (1↖↗2 2↙↘1)을 참고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準對角의 그림 (|1↘↗1| 1→2 2→1) 내부의, 세 가지 分類(分析)를 참조한, 配置(分類/分析)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對角線(1↖↗2 2↙↘1)의 配置(分類/分析)를, 準對角線적으로 **남김 없이** 分類(分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

對角線(1↖↗2 2↙↘1 및 2↖↗1 1↙↘2)의 配置(分類/分析)를 準對角線적으로 일차적으로 分析(分類)하면 네개의 準對角線(1↖╱↗2 2↙╱↘1; 2↖╱↗1 1↙╱↘2)을 얻는다. 이 네개의 準對角線을, 문제의 準對角線(|1↘↗1| 1→2 2→1)의 세 가지 分類(分析)(앞 1°/2°/3° 참조) 중, 2° 즉, 上位(1↖2 2↗1)안의 上(1↖2)과 下(2↗1)와 下位(1→22→1) 안의 上(1→2)과 下(2→1)가 가리키는 바에 따라서 分類(分析)하고, 다시 그 分類(分析)에 따라서, 문제의 準對角線(|1↘↗1| 1→2 2→1)을 配置(分析/分類)함으로써 문제의 準對角線(|1↘↗1| 1→2 2→1) 네개의 配置(分類/分析)는 완료된다. 즉, 네개의 準對角線(1↖╱↗2 2↙╱↘1; 2↖╱↗1 1↙╱↘2)은, 2°의, 上位(1↘2 2↗1)안의 上(1↖2)과 下(1↗2)가 가리키는 바에 따라서, 上位(1↖↗2 2↙↘1)안의 上(1↖╱↗2)과 下(2↙╱↘1)로 分析(分類)되고, 다음

下位($1\to2\cdot2\to1$) 안의 上($1\to2$)과 下($2\to1$)가 가리키는 바에 따라서, 下位($\begin{smallmatrix}{}^{2}\nwarrow & & \nearrow{}^{1}\\ & \times & \\ {}_{1}\swarrow & & \searrow{}_{2}\end{smallmatrix}$)안의 上(${}^{2}\nwarrow\nearrow{}^{1}$)과 下(${}_{1}\swarrow\searrow{}_{2}$)로 分析(分類)된다. 이 分析(分類)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앞으로의 설명에서, 1은 上, **2**는 下로 부른다):

上(${}^{1}\nwarrow\nearrow{}^{2}$)　　下(${}_{2}\swarrow\searrow{}_{1}$)
上(${}^{2}\nwarrow\nearrow{}^{1}$)　　下(${}_{1}\swarrow\searrow{}_{2}$)

이 配置(分析/分類)가 가리키는 바에 따라서, 문제의 準對角線($\left|\begin{smallmatrix}1\searrow & \nearrow 1\\ 1\to2 & 2\to1\end{smallmatrix}\right|$)을 配置(分類/分析)함으로써, 그 配置(分析/分類)는 완료된다. 이것이, 對角線($\begin{smallmatrix}{}^{1}\nwarrow & & \nearrow{}^{2}\\ & \times & \\ {}_{2}\swarrow & & \searrow{}_{1}\end{smallmatrix}$ 및 $\begin{smallmatrix}{}^{2}\nwarrow & & \nearrow{}^{1}\\ & \times & \\ {}_{1}\swarrow & & \searrow{}_{2}\end{smallmatrix}$)의 配置(分析/分類)를, 準對角線적으로 남김 없이 分析(分類)함으로써, 그 分類(分析)에 따라 문제의 準對角線($\left|\begin{smallmatrix}1\searrow & \nearrow 1\\ 1\to2 & 2\to1\end{smallmatrix}\right|$)의 配置(分類/分析)에 도달하는 **變形작업**이다. 이 **變形작업**은 바꿔 말해서 **異方向적 同一視(混同)의 작업**이라고 표현될 수 있다. 위에서 행한, 對角線($\begin{smallmatrix}{}^{1}\nwarrow & & \nearrow{}^{2}\\ & \times & \\ {}_{2}\swarrow & & \searrow{}_{1}\end{smallmatrix}$ 및 $\begin{smallmatrix}{}^{2}\nwarrow & & \nearrow{}^{1}\\ & \times & \\ {}_{1}\swarrow & & \searrow{}_{2}\end{smallmatrix}$)의 準對角線적 配置(分析/分類)의 남김 없는 조사란, 그 각각의 分析(分類)의 어느 것에(을) **力點을 두는가(置重 하는가)**라는 관점에서의 남김 없는 分析(分類)이다. 여기서 **力點을 둔다(置重한다)**는 말은, **力點을 둔(置重한)** 것과 力點을 **두지 않은 것(置重하지 않은 것)**과를 **同一視(混同/變形)**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 **同一視(混同/變形)의 方向은, 같은 한쪽**에만 力點을 두는(置重하는) **等方向적 同一視(混同/變形)**가 아니라, 다른 두 쪽에 모두 力點을 두는 **異方向적 同一視(混同/變形)**라는 말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행한 **變形(同一視/混同)**작업은, **等方向적 變形(同一視/混同)**작업이 아니라, **異方向적 變形(同一視/混同)**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에서 도달한 바, 對角線($\begin{smallmatrix}{}^{1}\nwarrow & & \nearrow{}^{2}\\ & \times & \\ {}_{2}\swarrow & & \searrow{}_{1}\end{smallmatrix}$ 및 $\begin{smallmatrix}{}^{2}\nwarrow & & \nearrow{}^{1}\\ & \times & \\ {}_{1}\swarrow & & \searrow{}_{2}\end{smallmatrix}$)의 準對角線적 配置(分析/分類)는, 準對角線의 테두리안에서의 異方向적 變形(同一視/混同)작업 그 자체를 反映하고 있는, **異方向적 變形(同一視/混同)작업의 連續體**라고 부를 수 있다. 예컨대, 위에서, 도달한 이 準對角의 連續體중 하나(${}^{1}\nwarrow\nearrow{}^{2}$)는, 일차적으로는, 上位(${}^{1}\nwarrow$)에 力點을 둠(置重함)으로써, 그것을 下位($\nearrow{}^{2}$)와(로) 同一視/混同(變形)하고, 이차적으로는, 그와는 반대 方向으로 下位($\nearrow{}^{2}$)에 力點을 둠(置重함)으로써, 그것을 上位(${}^{1}\nwarrow$)와(로) 同一視/混同(變形)하는, 異方向적 變形(同一視/混同)작업의 連續體이다. 또 예컨대, 위 그림의 윗 두개의 連續體, 즉, 上(${}^{1}\nwarrow\nearrow{}^{2}$)과 下(${}_{2}\swarrow\searrow{}_{1}$)에서, 일차적으로는, 上(${}^{1}\nwarrow\nearrow{}^{2}$)의 上(${}^{1}\nwarrow$)에 力點을 둠(置重함)으로써, 그것을 下(${}_{2}\swarrow\searrow{}_{1}$)의 上($\searrow{}_{1}$)과(으로) 同一視/混同(變形)하고, 이차적으로는, 下(${}_{2}\swarrow\searrow{}_{1}$)의 下(${}_{2}\swarrow$)에 力點을 둠(置重함)으로써, 그것을 上(${}^{1}\nwarrow\nearrow{}^{2}$)의 下($\nearrow{}^{2}$)와(로) 同一視/混同(變形)하는, 異方向의 變形(同一視/混同)작업의 連續體이다. 이와 같은 連續體는, 위 그림에서, 이에 그치지 않고, 아래 두개 즉 下(${}^{2}\nwarrow\nearrow{}^{1}$)와 下(${}_{1}\swarrow\searrow{}_{2}$), 왼편 아래/위 두개, 즉 上(${}^{1}\nwarrow\nearrow{}^{2}$)과 上(${}^{2}\nwarrow\nearrow{}^{1}$), 오른편 아래/위 두개, 즉 下(${}_{2}\swarrow\searrow{}_{1}$)와 下(${}_{1}\swarrow\searrow{}_{2}$), 그리고, 위 네개의 그림을 對角(×)으로 連結하는 두 線의 하나(╲)에 따르는 連結, 즉 上(${}^{1}\nwarrow\nearrow{}^{2}$)과 下(${}_{1}\swarrow\searrow{}_{2}$), 다른 하나(╱)에 따르는 連結,

즉, 上($^{2}\nwarrow\!\diagup\!\nearrow^{1}$)과 下($_{2}\swarrow\!\diagdown\!\searrow_{1}$)에 모두 존재한다. 왜냐하면 이들 連結은 對角線($\begin{smallmatrix}1\nwarrow & \nearrow 2\\ 2\swarrow & \searrow 1\end{smallmatrix}$ 및 $\begin{smallmatrix}2\nwarrow & \nearrow 1\\ 1\swarrow & \searrow 2\end{smallmatrix}$)의 準對角線적인 同一視/混同(變形)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아래에, 문제의 準對角의 그림($\begin{smallmatrix}|^1\searrow\boldsymbol{\nearrow}^1|\\ 1\to2\ \ 2\boldsymbol{\to}1\end{smallmatrix}$)을, 이 同一視/混同(變形)의 連續體로 표시함에 있어서, 위에 약속한, 1 즉 上에 해당하는 부분($\begin{smallmatrix}|^1\searrow\\ 1\to2\end{smallmatrix}$)을, 보통의 線(및 글자)으로, 2 즉 下에 해당하는 부분($\begin{smallmatrix}\nearrow^1\\ 2\to1\end{smallmatrix}$)을, 굵은 線(및 글자)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3°적(가장 구체적) 準異方向의 共存體

$$\begin{smallmatrix}|^1\searrow\boldsymbol{\nearrow}^1|\\ 1\to2\ \ 2\boldsymbol{\to}1\end{smallmatrix}\qquad\qquad \begin{smallmatrix}|^1\boldsymbol{\searrow}\nearrow^1|\\ 1\boldsymbol{\to}2\ \ 2\to1\end{smallmatrix}$$

$$\begin{smallmatrix}|^1\boldsymbol{\searrow}\nearrow^1|\\ 1\boldsymbol{\to}2\ \ 2\to1\end{smallmatrix}\qquad\qquad \begin{smallmatrix}|^1\searrow\boldsymbol{\nearrow}^1|\\ 1\to2\ \ 2\boldsymbol{\to}1\end{smallmatrix}$$

이것이 문제의 準對角線($\begin{smallmatrix}|^1\searrow\boldsymbol{\nearrow}^1|\\ 1\to2\ \ 1\boldsymbol{\to}1\end{smallmatrix}$)의 제일 구체적인 配置(分析/分類)이다. 그런데 이 準對角線의 그림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추상성의 정도에 따라서, 1°/2°/3°로 分析(分類)되므로, 남은 두개의, 準對角線 그림의 配置(分析/分類)를 나타내기 위하여, 대 괄호(〔 〕)표시를 써서, 앞서와 같이, 가는 線과 굵은 線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1°/2°/3°적(구체적) 準緞方向의 共存體

$$\left[\left(\left[\begin{smallmatrix}|^1\searrow\boldsymbol{\nearrow}^1|\\ 1\to2\ \ 2\boldsymbol{\to}1\end{smallmatrix}\right]\right)\right)\qquad\qquad \left(\left(\left[\begin{smallmatrix}|^1\boldsymbol{\searrow}\nearrow^1|\\ 1\boldsymbol{\to}2\ \ 2\to1\end{smallmatrix}\right]\right]\right]$$

$$\left(\left(\left[\begin{smallmatrix}|^1\boldsymbol{\searrow}\nearrow^1|\\ 1\boldsymbol{\to}2\ \ 2\to1\end{smallmatrix}\right]\right]\right]\qquad\qquad \left[\left[\left[\begin{smallmatrix}|^1\searrow\boldsymbol{\nearrow}^1|\\ 1\to2\ \ 2\boldsymbol{\to}1\end{smallmatrix}\right]\right)\right)$$

위의 **부채꼴**의 準對角線의 그림($\begin{smallmatrix}|^1\searrow\boldsymbol{\nearrow}^1|\\ 1\to2\ \ 2\boldsymbol{\to}1\end{smallmatrix}$ 등 등)의 異方向적 配置(分析/分類)의 표시를, 앞에서 본 바, 이 그림의 分析(分類)의 세 번째(3°의 a 및 b), 즉 ($\begin{smallmatrix}|^1\searrow\\ 1\to2\end{smallmatrix}$)와 ($\begin{smallmatrix}\nearrow^1\\ 2\to1\end{smallmatrix}$)의 異方向적 共存(配置/分析/分類)으로 잡아, 그것이 가리키는 바에 따라서, 그 각각을, 異方向의 화살 표(← 또는 →)와, 가는 線(글자)과 굵은 線(글자)를 써서, 표시할 수 있다. 위 부채꼴 그림의 配置(分析/分類)에 대응되게,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이것은 **準對角線**에 대응하는 **準異方向**의 화살표 그림이 된다) :

3°적(가장 구체적) 準異方向적 共存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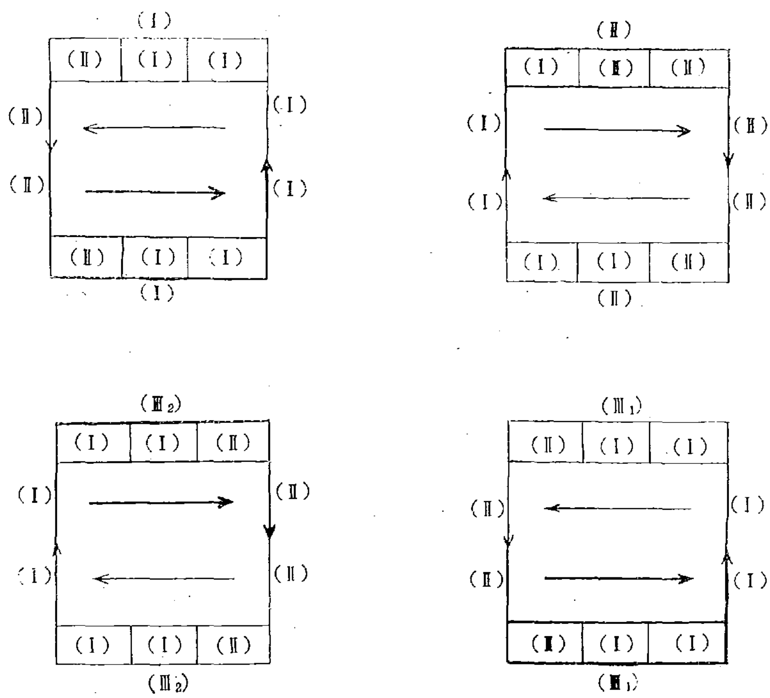
$$\begin{array}{c}(\mathrm{II})(\mathrm{I})(\mathrm{I})\\ \longleftarrow\end{array}\qquad\qquad\begin{array}{c}(\mathrm{I})(\mathbf{I})(\mathrm{II})\\ \boldsymbol{\longrightarrow}\end{array}$$

$$\begin{array}{c}\boldsymbol{\longrightarrow}\\ (\mathbf{II})(\mathrm{I})(\mathrm{I})\end{array}\qquad\qquad\begin{array}{c}\longleftarrow\\ (\mathrm{I})(\mathrm{I})(\mathrm{II})\end{array}$$

$$\begin{array}{c}(\mathrm{I})(\mathrm{I})(\mathbf{II})\\ \boldsymbol{\longrightarrow}\end{array}\qquad\qquad\begin{array}{c}(\mathrm{II})(\mathrm{I})(\mathrm{I})\\ \longleftarrow\end{array}$$

$$\begin{array}{c}\longleftarrow\\ (\mathrm{I})(\mathrm{I})(\mathrm{II})\end{array}\qquad\qquad\begin{array}{c}\boldsymbol{\longrightarrow}\\ (\mathbf{II})(\mathbf{I})(\mathrm{I})\end{array}$$

다음에는, 남은 두개 즉, 보다 추상적인 1°/2°적 異方向의 共存(配置/分析/分類)을 나타내기 위하여, 위 3°적 異方向의 共存體의 각각 $\left(\begin{array}{c}(\mathrm{II})(\mathrm{I})(\mathrm{I})\\ \xleftarrow{\qquad\qquad}\\ \xrightarrow{\qquad\qquad}\\ (\mathrm{II})(\mathrm{I})(\mathrm{I})\end{array}\text{ 등등}\right)$을, 일차적(추상적)으로는, 부채꼴 그림의 1°적 分析(分類) 즉 上$({}^{1}\searrow_{22}\nearrow^{1})$과 下$(1\rightarrow2\cdot2\rightarrow1)$로 잡고, 이차적(구체적)으로는, 2°적 分析(分類) 즉 上$({}^{1}\searrow_{2\,2}\nearrow^{1})$의 上$({}^{1}\searrow_{2})$과 下$({}_{2}\nearrow^{1})$, 下$(1\rightarrow2\cdot2\rightarrow1)$의 上$(1\rightarrow2)$과 下$(2\rightarrow1)$로 잡아서, 그것을, 위의 3°적 異方向의 共存體의 화살표 그림이 가리키는 바에 따라서, 分析(分類/配置)하면 다음과 같다. 이것은 곧 위의 3°적 異方向의 共存體를 포함하는 1°/2°/3°적(=구체적) 準異方向의 共存體의 부채 꼴 그림 $\left(\left[\left[\begin{array}{c}{}^{1}\searrow\nearrow^{1}\\ 1\rightarrow2\ \ 2\rightarrow1\end{array}\right]\right],\text{ 등등}\right)$에 대응되는, **화살표 그림**이 된다:



1°/2°/3°적(구체적) 準異方向의 共存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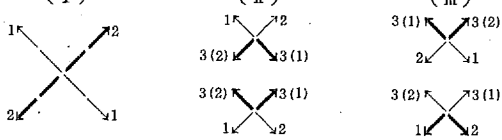
이것은 곧 외곽의 대괄호(〔 〕)를, 안의 準對角$\left(\begin{array}{c}|{}^{1}\searrow\nearrow^{1}|\\ 1\rightarrow2\ \ 2\rightarrow1\end{array}\right)$이 가리키는 바에 따라서, 그려진 부채꼴 그림에 대응되는 화살표 그림이며, 이로써 문제의 準對角$\left(\begin{array}{c}|{}^{1}\searrow\nearrow^{1}|\\ 1\rightarrow2\ \ 2\rightarrow1\end{array}\right)$의 그림의 配置(分析/分類)작업은 완료된다.

④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의** 對角線$\left(\begin{array}{c}{}^{1}\nwarrow\ \nearrow^{2}\\ {}_{2}\swarrow\ \searrow_{1}\end{array}\right)$을, 그 테두리 안에서 準對角線$\left(\begin{array}{c}|{}^{1}\searrow\nearrow^{1}|\\ 1\rightarrow2\ \ 2\rightarrow1\end{array}\right)$과는 **구별되는/異方向의**, 對角線으로 푸는 일이다. 위 ③에서, 準對角$\left(\begin{array}{c}|{}^{1}\searrow\nearrow^{1}|\\ 1\rightarrow2\ \ 2\rightarrow1\end{array}\right)$의 配置(分析/分類)작업 과정에서의 순서는, 對角線$\left(\begin{array}{c}{}^{1}\nwarrow\ \nearrow^{2}\\ {}_{2}\swarrow\ \searrow_{1}\end{array}\right)$을 準對角線적으로 풀고$\left(\begin{array}{c}{}^{1}\nwarrow\ \nearrow^{2}\\ {}_{2}\swarrow\ \searrow_{1}\end{array}\right.$ 및 $\left.\begin{array}{c}{}^{2}\nwarrow\ \nearrow^{1}\\ {}_{1}\swarrow\ \searrow_{2}\end{array}\right)$,

그것이 가리키는 바에 따라서, 準對角線$\left(\begin{smallmatrix}1\searrow & \nearrow 1\\ 1\to 2 & 2\to 1\end{smallmatrix}\right)$의 配置(分析/分類)에 도달했다. 따라서, 이번에는 그와 異方向으로, 이미 準對角線으로 풀어진 두개의 準對角線$\left(\begin{smallmatrix}1\nwarrow & \nearrow 2\\ 2\swarrow & \searrow 1\end{smallmatrix}\right)$ 및 $\left(\begin{smallmatrix}2\nwarrow & \nearrow 1\\ 1\swarrow & \searrow 2\end{smallmatrix}\right)$을, 準對角線$\left(\begin{smallmatrix}1\searrow & \nearrow 1\\ 1\to 2 & 2\to 1\end{smallmatrix}\right)$이 가리키는 바에 따라서, 分類(分析)하여야 한다. 두개의 準對角線$\left(\begin{smallmatrix}1\nwarrow & \nearrow 2\\ 2\swarrow & \searrow 1\end{smallmatrix}\right)$ 및 $\left(\begin{smallmatrix}2\nwarrow & \nearrow 1\\ 1\swarrow & \searrow 2\end{smallmatrix}\right)$은 異方向적 同一視/混同(變形)의 連續體이므로, 그 異方向性을 나타내기 위하여, 보통의 線(및 글자)와 굵은 線(및 글자)을 쓰고, 準對角線$\left(\begin{smallmatrix}1\searrow & \nearrow 1\\ 1\to 2 & 2\to 1\end{smallmatrix}\right)$의 異方向性이 가리키는 바에 따르는 숫자 표시의 성격을 살리기 위하여, 숫자 1/2만을 사용한 데에 대응하여 1/2와 3(1)/3(2)를 써서, 對角線$\left(\begin{smallmatrix}1\nwarrow & \nearrow 2\\ 2\swarrow & \searrow 1\end{smallmatrix}\right)$과 함께 그리면 아래와 같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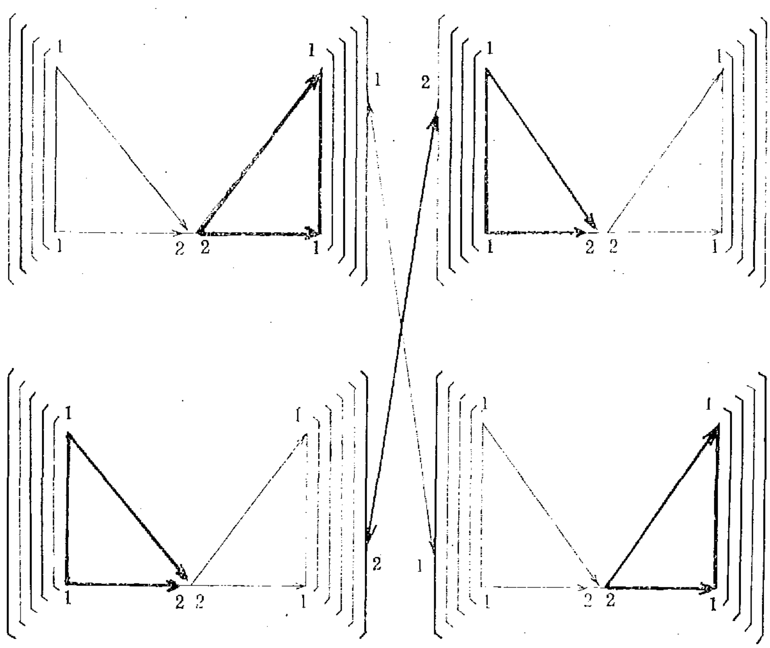
(Ⅰ)/(Ⅱ)/(Ⅲ)적 (추상적) 異方向의 共存體

(Ⅰ) (Ⅱ) (Ⅲ)



對角線$\left(\begin{smallmatrix}1\nwarrow & \nearrow 2\\ 2\swarrow & \searrow 1\end{smallmatrix}\right)$의, 이 세 가지 分類(分析)는, 위 ③의 準對角線$\left(\begin{smallmatrix}1\searrow & \nearrow 1\\ 1\to 2 & 2\to 1\end{smallmatrix}\right)$의 세 가지 分類(分析)와 **異方向적**인 分析(分類)이다.

⑤ 위 ③의 準對角線$\left(\begin{smallmatrix}1\searrow & \nearrow 1\\ 1\to 2 & 2\to 1\end{smallmatrix}\right)$의 세 가지 分類(分析)와 ④의 對角線$\left(\begin{smallmatrix}1\nwarrow & \nearrow 2\\ 2\swarrow & \searrow 1\end{smallmatrix}\right)$의 세 가지 分類(分析)를 동시에 나타내기 위하여, ④의 Ⅱ 및 Ⅲ의 準對角線을 대괄호(〔 〕)를 써서, ③의 準對角線의 分類(分析)의 대괄호(〔 〕)의 외곽에다 표시하고, 이것을 對角線$\left(\begin{smallmatrix}1\nwarrow & \nearrow 2\\ 2\swarrow & \searrow 1\end{smallmatrix}\right)$으로 連結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異方向적(對角線적) 二重運動 連續體